



“ 작은 움직임으로 말을 걸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 인터랙션 디자이너 강소이 입니다.”

상세정보

생년월일 1997 . 08 . 21
전화번호 010 . 2450 . 3262
이메일 sole821@naver.com
주소 의왕시 내손동

학력 사항

2016.02 백양고등학교 졸업
2021.02 계원예술대학교 졸업 예정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전문학사)

자격정보

2010.03 ITQ 한글 파워포인트 B등급
2016.07 GTQ 그래픽 기술 자격 1급

수상내역

2019 . 07 1학년 1학기 기초디자인 우수작 선정
2019 . 09 1학년 2학기 부과대 선정
2019 . 02 1학년 2학기 영상 디자인 우수작 선정
2020 . 07 커뮤니케이션 국제공모전 회장상 수상

날카로운 통찰력

“기획은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통찰’이란 다양한 관점으로 사물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며, 문제점들을 확실히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으려 분석, 평가, 종합의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떠한 일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진 채 일을 진행하게 되면, 쉽게 속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한계를 없애며 생각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들을 통해 선입견 없는 이해력을 기를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 결국에는 전체를 볼 줄 아는 인터렉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깊이 있는 의사소통

“좋은 의사소통은 태도로부터 비롯된다”

저는 비단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라, 상대를 이해하는 생각이 없다면 성립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소통능력으로 초, 중, 고등학교 12년 동안 반장을 해왔고, 대학교에서는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수월하게 과제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모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연합 PT에 참가해 많은 사람에게 작업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간혹 의견충돌도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좋은 인터렉션 디자이너는 기계와 사람간의 좋은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 넘어의 사용자까지 이해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의사소통 능력은 어느 상황에서도 저를 도와줄 좋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방법은 나를 이해하는 것”

저는 아기 때에도 쉽게 울지 않아 어머니가 걱정했을 만큼 태생적으로 조용한 성격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무뎠던 성격으로 무엇인가 강하게 주장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공부하며 마주하는 상황은 달랐습니다. 생각을 전달하는 일이나, 무언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일은 적당한 의견피력이 뒷받침될 때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강한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제스처를 과장되게 보여주며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한 사람이라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했고, 오히려 가벼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매력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발표는 가장 오래 공을 들이고 치밀하게 준비한 발표였지, 가장 목소리가 컸던 발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좋지만, 제가 맡은 바를 성실하게 보여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저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조용한 발표는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쇼맨쉽과 전달력의 밸런스를 잘 잡으며 발표능력을 기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